02□□□_□□□□□□16□ 14. 2. 10. □□ 3:20 Page 27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6호 2013.12. pp.27~53.

북한 TV드라마의 유형과 체계*
Type and System of North Korean TV Drama

김미진(단국대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연구교수)

차 례

1. 들어가며
2. 북한의 TV드라마 연구 현황
3. 북한의 방송 체계와 TV 드라마유형
4. 나오며

1. 들어가며

본고는 북한의 문화예술 장르 가운데 비교적 연구가 미비했던 TV드라마의 총체적 연구를 위해 선행된 연구를 검토하고 향후 북한의 TV드라마 연구의 활발한 진행을 모색하기 위한 선행 논문이다. 본고에서 북한의 문화예술 장르 중 TV드라마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문학·연극·영화·음악 등과 마찬가지로 TV드라마도 그 나름의 형태적 특성을 가지고 북한의 문학예술의 한 축을 확고히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이나 영화에 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이다. 물론 여기에는 문학작품이나 음악과 같은 장르에 비해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8-411-J03301)

02□□□_□□□□□□16□ 14. 2. 10. □□ 3:20 Page 28

접근 자체가 용이하지 못한 점과 '연속극'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편의 텍스트를 온전히 감상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조선문학』이나 『조선예술』, 『예술교육』과 같은 문학예술 관련 지면을 통해서 소개되는 평론이나 기사들 역시 문학과 영화, 음악, 연극에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어 북한의 TV드라마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하기가 쉽지 않다.

영화나 연극과 같이 지정된 장소에서 공연이 되는 장르는 우선 시간의 제약과 공간 이동의 제약이 따르지만, TV는 그렇지 않다. TV는 누군가가 전원을 끄기 전에는 그 속에서 나오는 콘텐츠들은 무차별적으로 시청자에게 전달되는데, 다시 말하여 문화수용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영화나 연극보다 접근의 용이성을 갖춘 매체이며, 그 속에서 TV드라마는 수용자와 가장 가깝게 만나며 수용자들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장르로 존재한다. 이에 대해 텔레비죤문학의 시청방식의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소설이나 시와 같은 문학작품들의 경우에는 독자들이 임의의 장소에서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마음대로 읽을수 있다면 영화나 연극, 가극을 비롯한 문예작품들은 극장이나 영화관을 비롯한 일정한 관람장소들에서 서로가 사회공중도덕질서를 지켜가면서 관람할것을 요구한다.
>
> 그러나 텔레비죤문학들에 의하여 형상된 텔레비죤문예편집물들은 시청방식에 따라 혼자서 보거나 가정적인 분위기속에서 시청한다는데로부터 그 어떤 외부적 〈통제〉나 아무러한 〈구속〉도 받지 않게 된다. 이러한데로부터 텔레비죤문학은 임의의 순간에 사람들의 관심과 주의를 텔레비죤화면에 끌어당길수 있는 강한 견인력과 흥미를 가지고있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 텔레비죤문학이 가지고있는 자기 식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1]

북한 주민의 실생활과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매체인 TV는 그렇기 때

02□□□_□□□□□□16□ 14. 2. 10. □□ 3:20 Page 29

문에 여타의 북한의 문학이나 영화 못지않게 면밀하고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목적의식이 본고에서 TV드라마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두 번째 이유이다. 하지만 북한의 예술작품 제작환경에 따라 드라마의 제작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매일 1시간씩의 방송이 이뤄져야하는 한계가 있어 드라마의 제작편수가 많은 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상영된 영화를 방송에서 편성하거나, 이미 방영이 끝난 작품을 재방송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렇지만 분명히 영화와 드라마는 촬영방법이나 소재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제작 방법이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에서 이 연구를 시작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TV드라마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시작 단계로, 북한의 방송체계와 TV드라마에 대한 북한식의 장르 규정 등을 면밀하게 고찰해 볼 것이다.

2. 북한의 TV드라마 연구 현황

북한 TV드라마 및 방송 전반에 관한 연구 가운데 가장 최근의 연구는 이주철의 연구이다. 이주철은 「조선중앙TV 연구」[2]에서 2000년대의 조선중앙TV 현황 전반을 검토했으며, 이것은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발표된 「김정일정권의 TV드라마를 통한 체제선전에 관한 연구」[3]와 「조선중앙TV 드라마 연구」[4]의 후속 · 확대 연구이며, 조선중앙TV 전반에 관한 현황을 총망라한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물이라 것에 의의가 있다.

이주철은 「조선중앙TV 드라마 연구」에서 드라마가 영화와 다른 점으

1 류철웅, 「텔레비죤문학의 일반적특성」, 『예술교육』 2004년 제2호, 평양:2 · 16예술교육출판사, 2004. 6., 25쪽.(밑줄 – 연구자)
2 이주철, 「조선중앙TV 연구–2000년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논문, 2011.
3 이주철, 「김정일정권의 TV드라마를 통한 체제선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4 이주철, 「조선중앙TV 드라마 연구」,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2002.

02□□□_□□□□□□16□ 14. 2. 10. □□ 3:20 Page 30

로 '드라마가 영화에 비해 일상생활을 반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 대한 묘사가 많아질 수밖에 없으며 일상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관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방법의 하나로 '드라마 읽기'를 선택하고 있다. 여기에는 드라마가 '소설작가가 보여주기 어려운 부분, 즉 현재의 사회 현실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소설과는 다른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 정권이 신문, 방송과 함께 영화를 당 정책 선전의 '효율적 무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드라마를 볼 때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5] 또한 이 연구에서는 조선중앙TV 드라마의 특징을 분석하고 어떻게 체제 선전에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주철은 드라마를 통한 체제 선전의 방법을 '최고 권력자에 대한 충성 강요', '자력갱생의 해석 확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시대물 드라마를 통한 체제 정당화'로 나누어 보고 있다.

먼저 김정일에 대한 찬양과 선전유형을 '죄인 자책형', '절대 복종형', '흠모 찬양형', '은총 보답형' 등의 인물 유형들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이들의 유형을 각각 드라마 〈열망〉과 〈나의 소원〉에 등장하는 인물유형들을 예로 설명하고 있다.[6] 또한 〈열망〉을 자력갱생의 새로운 해석에 의한 성공의 사례를 보여준 작품이라고 평가하며, TV드라마는 자력갱생의 논리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변화된 해석을 전달하며 구체적으로 생산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7] 이밖에도 〈분수령〉, 〈오늘도 서있는 집〉, 〈대하는 흐른다〉, 〈수평선〉, 〈석개울의 새봄〉과 같이 해방기부터 1960년대까지의 시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시대물'로 분류하고, 이들 드라마가 과거를 호명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5 앞의 글, 128쪽 참고.
6 위의 글, 141~143쪽 참고.
7 위의 글, 145~146쪽.

02□□□_□□□□□□16□ 14. 2. 10. □□ 3:20 Page 31

어려움을 타개하고 북한정권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다.[8]

마지막으로 이주철은 조선중앙TV 드라마의 분석을 통해 '북한체제의 사회 통합능력이 크게 손상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북한체제가 정치권력과 인민대중이 상호 순응하는 현실에 있지 못'[9]하고 있다는 것을 결론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연구의 대상이 된 텍스트가 2000년 11월부터 2001년 2월까지 방영된 드라마에 국한되어 있어 이후 10년 이상의 텍스트 분석 및 그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없다는 점이 한계로 드러난다. 이어진 연구인 「조선중앙TV 연구」에서 이 점을 보완하여 2004년과 2010년에 방영된 드라마를 총망라했으며, 2010년 방영된 드라마 중에서 2001년과 2004년에 방영된 드라마가 재편성된 작품의 경향을 파악했다. 2001년과 2004년에 이어 2010년에도 방영된 작품은 〈석개울의 새봄〉, 〈조선의 별〉, 〈붉은 흙〉, 〈철의 신념〉인데, 〈조선의 별〉은 매년 김일성의 생일 기념해 4월에 고정적으로 편성되는 작품이므로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작품들은 모두 '북한체제에 대한 정당화(〈석개울의 새봄〉, 〈조선의 별〉, 〈붉은 흙〉)'와 '증산을 위한 선전(〈철의 신념〉)'에 조선중앙TV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10] 또한 2004년부터 이어진 중국 드라마의 방영을 언급하며, 이를 '북한과 중국 사이의 긴밀한 외교적 관계를 반영하는 것'[11]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여전히 드라마 한 편, 한 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분석이나 미학적 비평이 이루어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만 TV드라마의 편성과 유형을 검토하는데 그치고 있다.

앞서 검토된 이주철의 연구가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방법의 한 가지로 '드라마 읽기'를 선택했다면 남화순은 텔레비전 드라마의 순수성을 강조

8 앞의 글, 148~152쪽 참고.
9 위의 글, 154쪽.
10 이주철, 「조선중앙TV 연구—2000년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앞의 글, 165쪽.
11 위의 글, 167쪽.

02□□□_□□□□□□16□ 14. 2. 10. □□ 3:20 Page 32

한 패디 차예프스키적 사고와 텔레비전 드라마의 존재 이유와 기능을 강조한 레지날드 로즈식 사고를 모두 수용한 '드라마 보기' 방식을 연구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남화순[12]은 북한 텔레비전 드라마를 본다는 것은 북한 사회를 고찰함에 있어서 보다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이야기 거리들을 찾아낼 수 있게 해주며, 현실 생활의 사실적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북한 사회에 대한 간접적인 조망도 가능하게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텔레비전 드라마의 매체적·사회적 일반성에 기초하여 북한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북한의 일상적인 생활과 사회 변화 양상을 읽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북한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북한 사회의 변화 양상과 국가·가정·개인의 차원에서 이러한 변화 양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음과 같은 맥락 아래에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것은 북한이 추진하였던 경제회복전략 및 경제개혁 조치들이 드라마 속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적용되고 있는가, 가정차원에서 사회 변화 양상과 맞물려 드라마 속에서 보여지는 북한 가정의 모습을 중심으로, 개인차원에서 변화 상황에 직면하여 드라마 속에서 보여지는 인간상의 유형들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개별 작품들에 대한 내용분석을 시도한 결과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한 국가적 차원, 가정의 차원 그리고 개인의 차원별로 북한 사회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특히 가정차원의 변화 양상을 이혼, 맞벌이, 자녀문제 등을 전면으로 내세운 〈엄마를 깨우지 말아〉, 〈가정〉과 같은 작품의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며, 이로써 '당시 북한의 드라마 및 영화가 내용과 질에서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꾸밈없이 보여주고 있다'[13]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 역시 앞선 이주철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연구의 시기가

12 남화순, 「북한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본 사회 변화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3 위의 글, 71쪽 참고.

02□□□_□□□□□□16□ 14. 2. 10. □□ 3:20 Page 33

2003년인 점 때문에 분석에 사용된 텍스트의 방영시기가 2000년대 초반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 현 시점의 연구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다. 이와 더불어 연구자가 연구의 범위로 선정한 드라마들은 예술영화로 제작된 것을 TV를 통해 재방영한 것과 '텔레비전련속극'의 형태를 가진 것들이 혼종되어 있다. 연구의 서론 부분에서 북한의 '텔레비죤극예술'에 대한 구분은 되어 있지만 이후 분석의 대상으로 소개되는 작품들은 모두 '드라마'라는 용어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을뿐 장르적 특징을 전혀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연구자가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이후 연구과정에 '드라마'로 장르를 규정하고 있는 작품 중 〈자강도 사람들〉과 〈이어가는 참된 삶〉은 이미 영화로 만들어져 북한 내에서 많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며, 장르 역시 '예술영화'로 규정되어 있다. 즉, 영화의 형태로 이 두 작품의 대한 평론들이 『조선예술』과 같은 잡지에 상당수 수록되어 있는데, 예술영화로서 〈자강도 사람들〉과 〈이어가는 참된 삶〉의 특징 규명이 없이 '드라마'로 일관해 일반적인 분석에 그친 점을 오류로 지적할 수 있다.

남화순과 같이 개별 TV드라마의 분석을 진행한 연구로 이나영의 논문과 한민정의 논문도 있다. 먼저 이나영의 「북한 사회의 이상적 남성성: 2004년 이후 제작된 텔레비전 드라마를 중심으로」[14]는 〈따뜻한 우리집〉, 〈수업은 계속된다〉, 〈불길〉, 〈사랑의 권리〉 이상의 네 편의 작품으로 드라마에 나타난 남성상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남성인물은 헌신적이고 배려심이 강하면서도 인자하고 따뜻함을 지니고 있는 한편 강인한 심성과 원칙적이면서도 충실성이 돋보이고 때로는 권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당원과 영웅으로 표현되는 성공한 남성이자 충성스러운 공민으로 재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15]

한민정은 「TV 사극의 역사교육 활용 연구—남북한 TV 현대사극을 중

14 이나영, 「북한 사회의 이상적 남성성: 2004년 이후 제작된 텔레비전 드라마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5 위의 글, 90~91쪽 참고.

02□□□_□□□□□□16□ 14. 2. 10. □□ 3:20 Page 34

심으로」[16]에서는 남한의 TV드라마 〈제3공화국〉과 북한의 〈대하는 흐른다〉, 〈석개울의 새봄〉이 가지고 있는 역사극으로서의 특징과 사실성을 규명했으며, TV 사극을 교육에 활용하는데 있어 가능성과 한계를 점검하였다. 이 세 편의 작품을 '남북한의 대표적 정치 권력자를 다루고 있으며, 각기 남북한 사회에서 진행된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17]는 것으로 작품 선정의 이류를 들고 있다. 또한 '남북한의 경제성장과 발전의 기초가 되었던 체제 개편 시기의 다양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는데 의미'[18]를 두고 있지만 과연 이 세 편의 작품을 같은 기준을 놓고 비교 · 분석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일단 세 작품의 주제 및 소재가 상이하다. 〈제3공화국〉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인사와 현대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천세봉의 소설을 각색한 〈대하는 흐른다〉와 〈석개울의 새봄〉은 각각 해방기와 토지개혁 그리고 전후복구시기의 농업협동화 과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논문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대사극'이라는 용어 선정의 문제이다. '사극(史劇)'은 역사적 사건을 극으로 형상한 드라마의 한 장르이기는 하지만, 그 '역사'의 시기를 한정하는 선행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 북한의 TV드라마의 유형과 체계 그리고 개별 작품에 관한 분석을 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해 보았다. 앞선 서술대로 북한의 조선중앙TV에서 방영된 드라마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대체로 2000년대 초반에 방영된 작품들로 한정되어 있는 양상이다. 또한 개별 작품에 대한 분석보다 체제의 흐름에 맞춘 총체적 분석에 그친 점이 앞선 연구들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

16 한민정, 「TV 사극의 역사교육 활용 연구—남북한 TV 현대사극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7 위의 글, 4쪽.
18 위의 글, 36쪽.

02□□□_□□□□□□16□ 14. 2. 10. □□ 3:20 Page 35

3. 북한의 방송 체계와 TV드라마 유형

3.1. 북한의 방송

북한은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서 조선중앙방송 창설 4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방송리론』(1985)을 통해 방송의 본질과 기본 이념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이 문건을 통해 정의된 북한 방송의 본질은 "대중적이며 종합적인 보도선전수단이며 힘있는 사상문화교양수단"이라는 것이다. 또한 "방송이 당의 목소리이고, 또 당은 방송을 통하여 수령님의 사상과 당의 방침을 내외에 선전하며 광범한 군중을 혁명 투쟁과 건설사업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는 매체"로 보는데, 이것은 결국 체제의 선전선동 효과를 위한 도구로 방송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19] 북한의 모든 문학예술 전반이 체제를 단속하고 김일성-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우상화와 충성심을 요구하는데 쓰이고 있는 만큼 전원만 켰다가 끄기만 하면 되는 손쉬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한 번 켜진 TV는 누군가가 끄기 전까지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의 휴식 시간마저도 김일성－김정일－김정은과 관련되거나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노래하는 음악이 나오는 등 그 어떤 문학예술과 그것을 형상하는 수단 가운데 가장 유력한 선전선동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이 『방송리론』에서는 방송의 기본 사명을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끝없이 충직한 열렬한 김일성주의자로 만들며, 사회를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하며, 김일성주의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체사상을 전파하는 사상교양자로서의 역할과 경제나 문화를 포함하는 사회의 모든 분야를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하며 공산주의의 물질적 요새를 건설할 수 있

19 강현두, 『북한 매스미디어론』, 나남출판, 1997, 147～148쪽 참고.

02□□□_□□□□□□16□ 14. 2. 10. □□ 3:20 Page 36

도록 대중을 각성시키고 조직 동원하는 문화교양자적·선전 선동적 역할 그리고 남한 혁명을 통한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해 투쟁하는 것으로 방송의 임무를 소개하고 있다.[20]

북한의 가장 대표적인 방송이자 철저하게 당의 관리감독하에 시스템이 이뤄지는 조선중앙TV의 편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평일에는 저녁 시간대에 6시간만 방송을 송출하는 북한의 조선중앙TV는 오후 5시 '보도'와 6시부터 8시까지 김정일 선전과 관련된 프로그램, 8시 '보도'를, TV 드라마는 보도가 끝난 후 8시 30분~40분에 시작되어 약 50분간 방영된다. 조선중앙TV의 드라마 편성은 대부분 하루에 1회분이 방영되지만, 2회분이 연속으로 편성되는 경우도 가끔 있고, 몇 개월이 지나 재방송되는 경우도 있다[21]는 것이 이주철의 설명이다.

다음의 〔그림 1〕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22]에서 제공되는 북한의 '조선중앙TV' 편성표이다. 가족들이 집에 모여 저녁식사를 하면서 TV를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인 저녁 6시 이후의 시간에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 관한 기록영화나 현지시찰 내용이 방영되며 이어서 뉴스의 형태인 '보도'가 이어진다. 그리고는 드라마나 예술영화가 방영되는데, 북한의 영화나 드라마 제작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닌 관계로 우리나라처럼 항상 새로운 작품을 방송하기보다는 한 번 만들어진 작품을 재방송 해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김일성의 생일이 있는 4월, 김정일의 생일이 있는 2월에는 그들과 관련된 예술영화, 기록영화를 연속적으로 편성해 보여준다.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존의 작품을 재방송해주어 김일성의 혁명전통과 김정일-김정은을 향한 충성 요구를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

20 앞의 글, 152~153쪽 참고.
21 이주철, 『북한의 텔레비전 방송』, 한국학술정보(주), 2012, 165쪽 참고.
22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http://unibook.unikorea.go.kr/?sub_num=141&recom=V&idx=2013-12-06)

02□□□_□□□□□□16□ 14. 2. 10. □□ 3:20 Page 37

2013년 12월 04일 (수)

본 프로그램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음.

시간	방송순서
15:13	<과학영화> 고온공기연소식 가열로
15:26	<과학기술상식> 버섯기르기 - 흰곤봉버섯 -
15:30	<조선예술영화> 흰연기 (2008.11.22 재방)
17:00	보 도
17:10	오늘호 중앙신문개관
17:23	<아동방송시간> 아동영화 : 참동이와 옥돌이
17:44	<소개편집물> 원군을 가풍으로 - 평양시 중성동 제41인민반 김순녀 -
18:08	<조선기록영화> 누리에 빛나는 선군태양(제2부) - 혁명전통을 빛내시며 - (2009.9.20 재방)
19:01	만대에 길이 빛날 애국애민의 한평생 <련속편집물>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나날을 더듬어 - 광복지구상업중심을 찾아서 -
19:15	<잊지못할 화폭> 변함없는 믿음으로 키워주시며
19:39	<집중방송> 총돌격전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남흥 -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
20:00	보 도
20:19	<병사의 고향소식> 방문기 : 공장이 자랑하는 후방가족들 - 봉화화학공장 -
20:26	<체육경기소식> 공화국선수권대회 - 남자빙상호케이 - (장자산 : 사자봉)
20:52	<조선예술영화> 위훈의 길 (2008.4.1 재방)
22:14	오늘의 보도중에서

〔그림 1〕 조선중앙TV 편성표(2013. 12. 04)

02□□□_□□□□□□16□ 14. 2. 10. □□ 3:20 Page 38

3.2. TV드라마의 유형

현재 북한에서 문학예술의 장르를 규정하는 데는 안희열의 『주체적 문예리론연구 22: 문학예술의 종류와 형태』[23]를 참고할 수 있다. 비록 1996년에 출판된 자료이긴 하나, 북한 문학예술 전체의 종류와 형태를 구분해놓은 마지막 저서이며, 문학뿐만 아니라 영화·연극·가극·음악·무용·미술·교예의 특징과 유형별 형태 등을 총망라하였다. 이 저서는 '주체문학론에 입각해 안희열이 북한의 문학예술의 종류와 형태에 관해 구분원칙과 형태적 특성 등을 밝힌 것'[24]이다.

안희열의 구분을 따라 북한의 문학예술 장르 가운데 TV드라마가 속한 위치를 보자면, '텔레비죤극'은 연극의 하위에, '텔레비죤영화'는 영화의 하위부류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안희열의 기준에 따르면 '극(劇)'을 형상수단을 이용하는 특성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연극예술의 형상수단에 따라 구분되는 장르에는 탈극, 인형극, 화극, 시극, 방송극(련속방송극, 회상기방송극, 텔레비죤방송극), 텔레비죤극 등이 속한다. (참고 : 〔표 1〕)

대분류	분류기준	중분류	소분류
연극예술	형상수단에 따라	방송극	텔레비죤방송극
		텔레비죤극	—

〔표 1〕 연극예술의 종류와 형태구분[25]

즉 북한의 TV드라마는 연극의 기본 형상 수단이 되는 '대사'를 통해 '극'을 전개시키는 극예술의 형태를 가졌으며, 이것을 '극적인 생활을 무

23 안희열, 『주체적 문예리론연구 22: 문학예술의 종류와 형태』, 평양: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6.
24 오창은, 「주체의 시대, 북한문학의 양식」,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편, 『북한 문학예술의 장르론적 이해』, 도서출판 경진, 2010, 75쪽.
25 안희열, 앞의 글, 228쪽 참고.

02□□□_□□□□□□16□ 14. 2. 10. □□ 3:20 Page 39

대우에 보다 생동하고 설득력있게 펼쳐보이기 위하여 여러가지 다양한 수단'[26]들을 탐구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장르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TV라는 장치는 극을 전개시키는 다양한 수단들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드라마(Drama)'라는 용어 자체가 가진 연극적 의미에 그 기원을 둔 해석이다.

한편, 위의 〔표 1〕에서 방송극의 하위분류인 '텔레비죤방송극'과 연극예술의 하위분류로 존재하는 '텔레비죤극'의 의미가 모호해진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언급도 안희열의 저서에서는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방송극'은 무대극을 방송을 통해 중계해 주는 형태라면, '텔레비죤극'은 '텔레비죤의 특성에 맞게 발생'[27]한 보다 발전된 형태로 볼 수 있다.

한편, 영화예술의 분류에서도 TV드라마의 유형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영화예술을 '화면의 색갈, 규격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북한의 영화는 장르별로 크게 예술영화/기록영화/과학영화/아동영화로 세분화되는데, 이것은 영화예술을 '묘사대상의 특성에 맞게 형상대상 및 형상수단, 수법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그리고 작품의 '생활내용의 범위와 용적 및 작품의 규모에 따라'서 장편/중편/단편영화로 구분된다.[28]

한편, 이 분류 속에는 색깔의 구분에 따라 흑백색영화/천연색영화, 영화의 규격에 따라 소폭영화/광폭영화/립체영화/텔레비죤영화/록화영화(비데오) 등으로 나눈다.[29] 여기에서 '텔레비죤영화'는 텔레비전의 보급되면서 브라운관의 규격에 맞게 극의 형상을 하는 영상예술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다.(참고 : 〔표 2〕)

---

26 위의 글, 217쪽 참고.
27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문학예술사전(하)』,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3, 155쪽.
28 안희열, 앞의 글, 192쪽 참고.
29 위의 글, 193쪽.

02□□□_□□□□□□16□ 14. 2. 10. □□ 3:20 Page 40

대분류	분류기준	중분류
영화예술	화면의 색갈, 규격에 따라	텔레비죤영화

〔표 2〕 영화예술의 종류와 형태구분[30]

하지만 이것은 북한 영화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무성 영화가 유성 영화로, 흑백의 영화가 컬러 영화로 발전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영화예술 발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TV방송이 시작되고, 텔레비전 수상기의 보급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텔레비죤영화가 새롭게 탐구개척되여 창조발전'[31]하게 되었다는 짧은 언급만 되어 있을 뿐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북한의 '텔레비죤극'은 극예술의 형태를 가진 연극과 영상예술의 형상 방법을 가진 영화의 형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된다. 곧 "텔레비죤극은 연극예술의 극적형태와 영화적인 형상 수단과 수법들을 계승하여 자기의 고유한 형상적생리에 적응시킨 새로운 형태"[32]의 문학예술인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정의한 TV드라마의 의미를 살펴보자. 북한의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에서 발행한 『문학예술사전』에서는 북한의 TV드라마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텔레비죤극**은 대사를 기본수단으로 하여 형상한 극적인 생활을 텔레비죤의 예술수단을 통하여 보여주는 텔레비죤문예편집물. … 텔레비죤영화가 행동의 예술로서의 영화적특성을 가지고있고 텔레비죤소설이 묘사문학으로서의 소설의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있다면 텔레비죤극은 대사를 기본형상수단으로 한다

30 위의 글, 201쪽 참고.
31 위의 글, 193쪽.
32 황갑수, 「텔레비죤과 텔레비죤예술작품(1)」, 『조선예술』 1991년 제5호, 평양:문예출판사, 1991. 5., 63쪽.

02□□□_□□□□□□16□ 14. 2. 10. □□ 3:20 Page 41

> 는데 그 특성이 있다. … 텔레비죤극은 관중을 직접 상대로 하는 무대극과는 달리 형상창조가 촬영기와 마이크와의 호상관계속에서 진행되며 무대전환시간이나 중간휴식시간이 따로 없다. 텔레비죤극은 촬영기로 모든것을 구체적이면서도 가깝게 보여주기때문에 의상, 분장, 장치 등을 실생활에서처럼 진실하게 할것을 요구한다. 텔레비죤극은 대사예술의 속성을 가지면서도 텔레비죤형상수단을 통하여 실현되기때문에 영화적인 형상수법도 일정하게 활용하여 화면의 시공간적폭을 넓힐수 있다.[33]

대사를 기본형상으로 활용하고 있는 '텔레비죤극'은 가장 보편화된 TV드라마의 형태로, 무엇보다 실생활을 진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소재적인 측면에서 일상 생활과 밀접한 작품들이 많다. 2000년에 조선중앙방송위원회 텔레비죤극창작단에서 만든 〈우리 료리사〉는 '감자의 보급과 주식화'를 주제로 내세우고 있으며, 주인공은 요리사 부부이다. 이 작품은 식량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북한의 의도가 엿보이기는 하지만, 이것마저도 실생활에서 감자를 주식화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가정에서 감자를 활용한 음식을 많이 해 먹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어쨌든 이 작품은 '가정', '부부', '식생활'과 같이 일상 생활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소재들과 인물을 작품의 전면에 내세워 전개하고 있다.

'텔레비죤극'은 1회 분량도 있으며, 연속극의 형태로 하루에 한 편씩 매이 방송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연속극은 우리나라의 월화/수목드라마의 형태와는 다르게 매일 같은 시간에 보여지는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TV드라마가 월화드라마, 수목드라마, 주말드라마, 일일드라마 등 요일별, 시청 시간대별로 나뉘어 구분되는 반면 북한의 드라마는 대체로 일일연속극과 같이 요일이나 시간대별로 나뉘지

33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문학예술사전(하)』,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3, 155~156쪽. (강조와 밑줄 - 연구자.)

02□□□_□□□□□□16□ 14. 2. 10. □□ 3:20 Page 42

않고 연속된 형태로 방영된다. 이렇게 북한의 드라마가 요일의 끊어짐 없이 종영할 때까지 매일 방송되는 데는 극이 가지고 있는 '연속성' 때문이다.

텔레비죤극예술작품이 련속편의 구성을 많이 가지게 되는것은 한편의 길이가 짧게 구성된다는 시간상 제약도 있겠지만 다음부를 기다리는 관중의 심리를 자극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텔레비죤수상기앞으로 모여들게 하는 연출가의 형상적묘기이다.[34]

이와 같이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완결된 서사를 시청자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연속극의 형태로, 하나의 작품이 종결될 때까지 연이어 방송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각 방송사의 이익 창출과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송사간의 시청률 경쟁으로 인해 일주일에 한 편 혹은 두 편으로 제한을 두며 방송을 한다. 이러한 연속극은 '텔레비죤소설'의 유형에서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장편소설을 각색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먼저 북한에서 설명하는 '텔레비죤소설'의 정의를 살펴보자.

텔레비죤소설은 소설랑독자의 화술과 화면이 배합되여 형상창조되는 텔레비죤문예편집물. 텔레비죤방송은 문학일반의 형상수법과 함께 영화를 비롯한 종합예술의 형상수단과 수법을 전면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텔레비죤소설은 이러한 가능성을 리용하여 묘사문학으로서의 소설의 고유한 속성을 살리면서 텔레비죤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소설내용을 화면으로 형상창조하여 보여주는 문예편집물이다. 텔레비죤소설은 랑독자의 화술로 실현되는 언어묘사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화면이 배합된다. 랑독은 화면밖에서 할

34 황갑수, 「텔레비죤극예술(3)」, 『조선예술』 1993년 제6호, 평양:문예출판사, 1993. 6., 59쪽.

02□□□_□□□□□□16□ 14. 2. 10. □□ 3:20 Page 43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엇바꾸어 할수도 있으며 생활의 진실을 파괴하지 않는 한 랑독자가 등장인물로 들어갈수도 있고 등장인물이 랑독자로 변할수도 있다. … 텔레비죤소설은 여러 회로 나누어지면서 상대적인 매듭이 지어져있는 것이 특징이다.[35]

'텔레비죤소설'이 다른 텔레비전극들과의 차별을 유지하는 것은 '낭독자'의 극중 참여 여부이다. 화면 밖에 있는 임의의 인물이 낭독을 할 수도 있고, 등장인물 중의 누군가가 낭독자가 될 수 있는 이 형태는 카메라 장치로 화면에 담을 수 없는 소설의 묘사 기능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낭독의 효과로 인해 다른 장르보다 조금 더 소설에 가깝다고 평을 하는 것이다.

소설의 묘사기능을 극대화하여 화면을 형상해야 하고, 일부를 낭독자가 낭독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텔레비죤소설'은 주로 소설을 개작하여 만들어진다. 단편소설을 개작할 경우에는 '텔레비죤소설'이, 장편소설을 개작할 경우에는 '텔레비죤련속소설'이라는 명칭이 다음의 〔그림 2〕처럼 드라마 시작 부분에 보여진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 작품으로는 천세봉의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을 각색해서 만들어 1992년에 방영된 '텔레비죤소설' 〈석개울의 새봄〉이 있다.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 창혁이 극중에서도 연기를 하지만 화면 밖의 낭독자로도 존재한다. 하

〔그림 2〕 텔레비죤련속소설 〈석개울의 새봄〉 도입부 화면

35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문학예술사전(하)』, 앞의 책, 156쪽.

02□□□_□□□□□□16□ 14. 2. 10. □□ 3:20 Page 44

지만 이렇게 작품 속 등장인물이 내레이션의 형태로 극의 분위기나 사건 정황 등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방식은 굳이 '텔레비죤소설'이라고 규정하지 않은 다른 TV드라마 장르에서도 적지 않게 등장한다. 실례로, 2011년 조선중앙TV에서 방영된 〈우리 녀자축구팀〉이라는 5부작 TV드라마는 작품의 제목 앞에 '텔레비죤련속극'이라는 것을 명기해 장르를 규정을 해놓았다. 하지만 1부부터 5부까지 극의 도입부는 주인공 역의 리정우의 내레이션으로 시작되며, 동시에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 극이 이어지고 있는 형태를 반복해서 보여준다. 이 작품도 〈석개울의 새봄〉과 같이 극의 등장인물의 주인공의 역할을 하며 동시에 상황을 설명해주는 내레이션 즉 낭독자가 되기도 한다.

한편 텔레비전으로 방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작된 영화로 정의된 '텔레비죤영화'는 대부분의 북한의 영화처럼 영화 상영 후 TV에서 재방영해주는 형태와 제작 시작부터 '예술영화'의 형상 방법을 활용해 만들어지는 형태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의 사정에 비춰 본다면 전자는 이미 영화관에서 상영을 종료하고 명절이나 공휴일 등에 특별편성되는 영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으며 후자는 단막극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영화관에서 상영된 예술영화를 TV에서 방영할 때는 '예술영화'는 명칭을 달기도 한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말하는 '텔레비죤영화'의 정의를 살펴보자.

> **텔레비죤영화**는 텔레비죤으로 방영할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작된 영화. 텔레비죤예술영화는 텔레비죤극의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반예술영화의 형상 수단과 수법들을 도입하는 과장에 발생하였으며 현재에 와서 급격히 발전하고있다. … 텔레비죤예술영화는 일반예술영화와 마찬가지로 장면을 방송실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모든것을 영화적인 수법으로 폭넓게 형상할수 있다. 또한 촬영도 련속적으로가 아니라 화면 또는 장면별로 나누어 진행하며 촬영된 필림을 편집대본에 기초하여 화면편집을 진행하고 소리도 앞

02□□□_□□□□□□16□ 14. 2. 10. □□ 3:20 Page 45

록음, 뒤록음, 동시록음을 하여 편집한다. 그리고 일반영화에서처럼 대사를 극력 적게 쓰고 인물들의 행동과 영화적묘사를 통하여 사상주제적과제를 해결한다.[36]

무엇보다 '텔레비죤극'과 '텔레비죤소설'이 대사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반면, 이 '텔레비죤영화'는 대사를 적게 쓰고 인물들의 행동을 영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운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것은 '텔레비죤극'과 '텔레비죤영화'의 시나리오의 형태부터 그 기원을 달리는 하는 점에서 기인한다. 안희열은 극문학의 갈래를 '영화문학/희곡/가극문학/기타'로 구분해놓고 그 하위 종류 중 형상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나리오를 분류했다.(참고 : 〔표 3〕)

〔표 3〕 극문학의 종류와 형태 구분[37]

대분류	중분류	분류기준	소분류
극문학	영화문학	형상수단리용에 따라	텔레비죤영화문학
	희곡		텔레비죤극문학

'텔레비죤소설'이 소설적 묘사방식을 지향했다면 '텔레비죤영화'는 영화적 묘사방식을 제작 방식으로 선택한다. 또한 촬영기법 측면에서도 영화와 같은 방식으로 장면별로 나누어 진행하며, 녹음의 방식도 규정해 둔다. 이것은 텔레비죤영화를 제작하는 제작단체에서 여타의 텔레비죤극과의 차이를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텔레비죤극은 조선중앙방송위원회 텔레비죤극창작단에서 제작되는 것에 비해 텔레비죤영화는 예술영화를 만들어내는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촬영, 제작된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는 예술영화를 전문적으로 생산해내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만들

36 앞의 책, 156쪽.
37 안희열, 앞의 글, 175쪽 참고.

02□□□_□□□□□□16□ 14. 2. 10. □□ 3:20 Page 46

어지는 텔레비죤영화는 촬영과 제작의 측면에서 예술영화의 창작방법론을 수용하고 있다. '텔레비죤극'과 '텔레비죤영화'가 근본적으로 다른 장르로 분리될 수 있는데는 이러한 형태 구분에 따른 장르 규정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텔레비죤영화로 분류된 작품으로는 〈가정의 재부〉(2000), 〈옥류풍경〉(2000), 〈축복합니다〉(2001) 등이 있다.

4. 나오며

일상생활에서 충족되지 않는 상상적인 즐거움으로서의 TV드라마 시청 방식은 한국 고유의 전통적인 극예술을 향유하는 관중의 관극 체험과 유사한 점이 있다.[38] 이 글에서 윤석진은 극적상황이 아무리 실제 현실을 재현한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작가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의 세계이며, 이 허구의 세계로 시청자들을 끌어들여 '한 판 놀이'를 즐기는 탈춤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주민들은 TV드라마를 즐기는데, 북한에서 시청률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9시 보도와 드라마[39]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에서 드라마는 인민대중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물론 '시청률'이라는 지표가 북한의 방송 시스템에서는 불필요한 것이지만 '시청률이 높다'라고 표현 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시청자들이 TV드라마를 향유하는 방식은 자본주의 국가의 미디어 향유자들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조선중앙TV 이외에도 몇 개의 방송국이 존재하지만 대다수의 북한 주민에게 허용되는 채널은

38 윤석진, 「'놀이'로서의 TV드라마 시청 방식 고찰」, 『한국언어문화』 제47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2, 93쪽.

39 장해성, 「탈북인사대담31:북한방송의 현황-"시청률이 가장 높은 프로는 9시 뉴스와 드라마"」, 『통일한국』 181호, 평화문제연구소, 1999, 44쪽.

02□□□_□□□□□□16□ 14. 2. 10. □□ 3:20 Page 47

조선중앙TV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채널 및 콘텐츠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일 것이다.

한편 문학예술을 '교양적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한 북한은, 문학예술작품의 사회적 가치를 '사람들을 교양'하고,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40] 따라서 북한의 모든 문학예술은 일차적으로 인민대중들을 교양하고 당대 사회 현실을 선전선동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TV드라마에서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드라마 상에서 다루고 있는 현실에 대한 교양이자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사상적 개조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북한 TV드라마 〈우리 료리사〉는 2000년에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영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북한이 당시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시, 부족한 쌀 소비를 줄이고 감자 생산을 늘리며 더불어 감자 음식 요리를 신장시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텔레비전이라는 접근 용이한 매체와 일상 생활을 소재로 삼기에 유용한 TV드라마라는 장르에, 의식주 가운데 '식(食)'을 소재로 다루며 당시 시대상을 고스란히 반영하며 시청하는 대중에게 인식 개조를 유도하는 방법을 적용한 이러한 형태는 북한의 많은 문학예술작품에서 사용된다.

남한에서도 이러한 식(食)문화를 소재로 한 드라마 작품이 많이 있었는데, 2000년대 이후 방송된 작품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대장금〉과 〈식객〉, 〈발효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작품들은 모두 주인공들이 요리사들이다. 하지만 이 요리사들이 추구하는 음식에 대한 신념은 다양하며, 드라마가 품고 있는 세계관 역시 각양각색이다. 북한에서처럼 사회현상이나 뚜렷한 목표의식을 즉각적으로 수용하지는 않고 있다. 단지 요리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그들이 속해 있는 작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사건들이 주요한 서사를 이룬다.

---

40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문학예술사전(상)』, 평양: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문학예술편집부, 1988, 778쪽 참고.

02□□□_□□□□□□16□ 14. 2. 10. □□ 3:20 Page 48

즉, '요리', '식문화'를 서사의 한 축으로 삼고 있지만, 그것을 표현해 내는 모양에서 남과 북의 TV드라마는 이처럼 현격한 이질화가 뚜렷이 발견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질된 모습 속에서도 남과 북의 소통과 융합의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 2007년에 남북문화교류의 일환으로 남북합작드라마가 만들어 진 것이 그것이다. 북한의 역사소설 『삭풍』(림종상)을 원작으로 하고 KBS에서 일체의 방송장비와 제작비를, 북한의 조선중앙TV에서는 연출과 제작 일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최초 남북합작드라마 〈사육신〉이 제작되었다. 남과 북에 모두 방영된 이 작품은 정사극보다 팩션에 익숙한 남한의 대중에게는 환영받지 못하였다. 또한 드라마의 흐름과 템포가 느려 우리의 시청자의 눈높이를 맞추기에 역부족이었다. 이것은 남과 북의 텔레비전 시청 문화가 가지고 있는 본질의 차이이며 기술의 발달과 드라마의 발전의 속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근본적인 문화적 차이에서 야기되는 남과 북의 문학예술의 이질성과 극복 의지는 문화를 수용하는 입장에서의 충분한 이해와 더불어 미학적 측면에서의 북한의 문학예술을 수용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 본 연구는 북한 TV드라마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1차 자료인 해당 영상물과 관련 북한 평론 및 문헌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미학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시도해 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이 남과 북의 드라마 통합 연구로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남북의 통합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02□□□_□□□□□□16□ 14. 2. 10. □□ 3:20 Page 49

강현두, 『북한 매스미디어론』, 나남출판, 1997.

남화순, 「북한 텔레비젼 드라마를 통해 본 사회 변화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류철웅, 「텔레비죤문학의 일반적특성」, 『예술교육』 2004년 제2호, 평양:2 · 16예술교육출판사, 2004. 6.

박우용, 『북한 방송 총람』,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문학예술사전(상)』, 평양: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문학예술사전(하)』,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3.

안희열, 『주체적 문예리론연구 22: 문학예술의 종류와 형태』, 평양: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6.

오창은, 「주체의 시대, 북한문학의 양식」,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편, 『북한 문학예술의 장르론적 이해』, 도서출판 경진, 2010.

윤석진, 「'놀이'로서의 TV드라마 시청 방식 고찰」, 『한국언어문화』 제47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2.

이나영, 「북한 사회의 이상적 남성성: 2004년 이후 제작된 텔레비전 드라마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이주철, 「김정일정권의 TV드라마를 통한 체제선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_____, 「조선중앙TV 드라마 연구」,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2002.

_____, 「조선중앙TV 연구-2000년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_____, 『북한의 텔레비전 방송』, 한국학술정보(주), 2012.

장해성, 「탈북인사대담31:북한방송의 현황—"시청률이 가장 높은 프로는 9시 뉴스와 드라마"」, 『통일한국』 181호, 평화문제연구소, 1999.

한민정, 「TV 사극의 역사교육 활용 연구—남북한 TV 현대사극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02□□□_□□□□□□16□ 14. 2. 10. □□ 3:20 Page 50

황갑수, 「텔레비죤과 텔레비죤예술작품(1)」, 『조선예술』 1991년 제5호, 평양:문예출판사, 1991. 5.

_____, 「텔레비죤극예술(3)」, 『조선예술』 1993년 제6호, 평양:문예출판사, 1993. 6.

02□□□_□□□□□□16□ 14. 2. 10. □□ 3:20 Page 51

Abstract

Type and System of North Korean TV Drama

Kim, Mi 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vance the active research on North Korean television drama (hereinafter "TV drama") in the future by conducting a general research study on North Korean TV dramas that was rather lacking to a certain degree in comparison to other genre of North Korean arts and culture by reviewing preceding research studies. Culture genres such as movies or theater plays where the performance is given in a fixed place are subject to restrictions in time and space, but television shows are not subject to such limitations. Unless someone turns off a television, the contents viewed on the TV are indiscriminately conveyed to the viewer. In other words, from the point of view of a culture recipient, the TV is a much more accessible medium than movies or theater plays and through TVs, TV dramas are the most easily accessible genre to recipients.

Today, literary fares called "literary art" are provided to their citizens in North Korea. Hui-Yeol Ahn's "Study on Juche Theory of Literature and Art: Types and Forms of Literary Arts" classifies the type of literary arts into literature, movies, theater plays, operas, music, dance, art and acrobatics. These types of literary arts have

02□□□_□□□□□□16□ 14. 2. 10. □□ 3:20 Page 52

been subdivided and categorized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forms. When examining the position in which TV dramas are placed among the genre of North Korean literary arts pursuant to Hui-Yeol Ahn's categorization, "Television Plays" are sub-categorized under theater plays, "Television Movies" are sub-categorized under movies. In light of such findings, it can be said that North Korean "Television Plays" simultaneously take on the form of a play which is characteristic of dramatic arts and the form of a movie which is displayed in the form of visual arts. That is to say that "Television plays are a new form of literary art that has been adapted to its own unique figurative nature by succeeding the means and methods of a movie-like format and the dramatic form of theater arts." The Korean Central News Agency, North Korea's representative broadcasting network and system wholly government-controlled and managed system, broadcasts the "news report" at 5 P.M., Kim Jung-Il propaganda related programs from 6 P.M. until 8 P.M., the "news report" at 8 P.M. and then airs TV dramas after the "news report" starting at 8:30 or 8:50 P.M. for about 50 minutes. The TV drama programming by the Korean Central News Agency mostly airs one episode a day. However, two consecutive episodes have been occasionally aired and there were times where reruns of previous episodes have been aired again a few months later. This study will first review studies on North Korean TV dramas that have been undertaken in South Korea and then propose a systematic and expansive research project on North Korean TV dramas to be carried out in the future.

02□□□_□□□□□□16□ 14. 2. 10. □□ 3:20 Page 53

주제어: 북한 TV드라마(North Korean TV Drama), 북한 문화(North Korean Culture), 방송(Broadcasting), 유형(Type)

논문 접수일 2013. 11. 08. | 논문 심사일 2013. 11. 22. | 게재 확정일 2013. 12. 13.